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 이문재 (현대시)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 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 문화 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 나무들

- 이문재,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첫 걸음.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작품이 보여주는 장면]

- 이 시는 겨울철 저녁 무렵의 광화문 네거리를 배경으로 합니다. 화자는 나뭇잎이 모두 떨어진 가로수들에 꼬마전구가 설치되어 반짝이는 도시의 밤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라면 해가 진 후에는 어둠이 찾아와야 하지만, 이곳은 인공적인 불빛으로 가득 차 있어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자는 이러한 광경을 보며 현대 도시문명이 자연의 질서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작품 분석]

1) 제1연: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라는 구절로 시작하여 자연의 순리가 깨진 역설적 상황을 제시합니다.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은 겨울나무의 본연의 모습을,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는 표현은 인위적으로 가해진 장식을 대비시킵니다. “불꽃 나무”라는 표현은 자연물이 인공물로 변질된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 제2연: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라는 구절은 현대사회가 자연스러운 어둠마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이라는 표현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오만함을 지적합니다. “잠들지 못하고”, “두 눈 뜨고 있다”는 표현들은 휴식도 취하지 못하는 도시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보여줍니다.

3) 제3연:

“이상한 광합성”이라는 표현은 자연의 법칙이 왜곡된 상황을 강조합니다.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이라는 구절은 빛으로 가득 찬 문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아이러니를 드러냅니다.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구절은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비판합니다.

[작품의 주제]

이 시는 “현대 문명의 인위적인 화려함이 자연의 순리를 왜곡하고 생명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로 주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걸음. 작품의 내용을 기억해 봅시다

1. [O/X]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겨울 저녁이다.¹⁾
2. [문제] 화자는 꼬마전구로 장식된 나무를 보고 감동하여 기뻐하고 있다.²⁾
3. [O/X] 이 시에서 "어둠"은 퇴치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 그려진다.³⁾
4. [O/X] "광화문(光化門)"이라는 표현은 빛으로 가득 찬 문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⁴⁾
5. [O/X]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은 겨울철에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의미한다.⁵⁾
6. [O/X] 시에서 "이상한 광합성"은 나무가 실제로 밤에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⁶⁾
7. [O/X] 이 시는 현대 문명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⁷⁾
8. [O/X]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행위를 비판하는 표현이다.⁸⁾
9. [O/X] 이 시에서 겨울나무는 도시 문명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⁹⁾
10. [O/X]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구절은 자연의 순리가 깨진 상황을 보여준다.¹⁰⁾
11. [O/X] 시의 제목에 나타난 네 개의 단어는 시의 주요 소재와 배경을 모두 담고 있다.¹¹⁾
12. [O/X]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대 문명의 피해자로 그려진다.¹²⁾
13. [O/X] 이 시의 성격은 자연 친화적이고 서정적이다.¹³⁾
14. [O/X] "문 닫은 세종 문화 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는 의인법이 사용된 표현이다.¹⁴⁾
15. [O/X] 이 시는 도시의 화려한 밤 풍경을 예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¹⁵⁾

셋째 걸음. 빈 칸을 채워 봅시다

[작품이 보여주는 장면]

- 이 시는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①) 무렵의 (②) 네거리입니다. 화자는 나뭇잎이 모두 떨어진 가로수들에 (③)가 설치되어 반짝이는 도시의 밤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라면 해가 진 후에는 (④)이/가 찾아와야 하지만, 이곳은 인공적인 불빛으로 가득 차 있어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자는 이러한 광경을 보며 현대 도시문명이 (⑤)을/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작품 분석]

1) 제1연:
“(⑥)”라는 구절로 시작하여 자연의 순리가 깨진 역설적 상황을 제시합니다. “(⑦)”은/는 겨울나무의 본연의 모습을,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들려붙어 있다”는 표현은 인위적으로 가해진 장식을 대비시킵니다.

2) 제2연:
“(⑧)”라는 구절은 현대사회가 자연스러운 어둠마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⑨)”이라는 표현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오만함을 지적합니다.

3) 제3연:
“(⑩)”이라는 표현은 자연의 법칙이 왜곡된 상황을 강조합니다.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이라는 구절은 (⑪)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아이러니를 드러냅니다. “(⑫)”라는 구절은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비판합니다.

4) 문학적 특징:

- 1) 이 시는 (⑬) 소재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현실을 비판합니다.
- 2) (⑭)을/를 통해서 대상에 닥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어 주제의식을 표출합니다.
- 3) (⑮) 표현을 통해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주제를 강조합니다.

---정답---

- (1) 겨울 저녁(겨울 저물녘) (2) 광화문 (3) 꼬마전구 (4) 어둠 (5) 자연의 순리(자연의 질서) (6)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7)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 (8) 어둠도 이전 평균 같은 것일까 (9)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 (10) 이상한 광합성 (11) 빛으로 가득 찬 문 (12)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13) 일상적 (14) 의인화 (15) 역설적



넷째 걸음.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라는 시는 기존에 출제된 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아 있는 기출 문제에 더하여, 수능 형식과 유사하게 제가 한 번 출제해 보았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 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 나무들

- 이문재,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1. 이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1)

- ① 어둠을 병균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 ② 광화문의 화려한 풍경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
- ③ 자연의 섭리를 현대 문명이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 ④ 가로수가 맨몸이 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⑤ 겨울을 겨울답게 두지 않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2. 이 시로 동영상을 만들 때, 그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

- ① 나무에 감긴 전구들의 불이 켜졌다가 일제히 꺼지는 장면
- ② 밝은 조명들이 켜지고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세종문화회관
- ③ 화려한 배경 영상 뒤에 깔리는 쓸쓸함이 느껴지는 배경음악
- ④ 밝게 빛나는 광화문(光化門) 글자 앞에서 웃으며 셀카를 찍는 화자의 모습
- ⑤ 위풍당당하게 내륙에서 강인한 모습을 뽐내고 있는 해군 장군 동상의 모습

3. 이 시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3)

<보기>

산성은 내린다.
12월 석은 구름들 아래
병실 밖의 아이들은 놀다 간다
성가의 후렴들이 지워지고
산성은 하얗게 온 세상 덮고 있다
하마터면 아름답다고 말할 뻔했다
깜깜하고 고요하다

-이문재, 『산성은 내리네』 중 1연

- ① 두 시 모두 1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비판하는 입장에 현혹될 뻔했어.
- ② <보기>의 '산성은'은 '낮을 켜 놓은 권력들'과 그 의미가 유사하겠군.
- ③ 두 시의 화자는 각각 다른 현상을 보고 있지만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
- ④ <보기>에서 눈이 하얗게 덮인 세상은 이 시의 '불꽃나무'처럼 보였을 것 같아.
- ⑤ <보기>의 '깜깜하고'는 이 시의 '어둠'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4. 이 시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4)

- ① ㉠ : 과거 회상 장면으로, 시간·공간적 배경이 드러난다.
- ② ㉡ : 화자는 어둠을 병균에 비유하여 몰아낼 대상으로 본다.
- ③ ㉢ :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여 광화문 네거리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강조한다.
- ④ ㉣ : 인공조명으로 생체 리듬이 깨져 밤을 낮으로 인식하는 나무의 모습이다.
- ⑤ ㉤ : 명사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김으로써 시간 공간에 대한 화자의 감동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5. 다음 중 이 시에 나타난 문학적 표현 기법과 그 예시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5)

- ① 역설법 -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 ② 의인법 - "문 닫은 세종 문화 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 ③ 도치법 -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
- ④ 반어법 - "불현듯 불꽃 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 ⑤ 직유법 -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6.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6)

- 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②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아름답게 느끼며 감탄하고 있다.
- ③ 겨울나무의 고독한 처지를 연민하며 위로하고 있다.
- ④ 광화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 ⑤ 도시 발전의 필연성을 인정하며 수용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⑥ 화자는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상적 세계를 동경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 전구들이 둘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어둠도 이전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단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 않다

7. 이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7)

- ① 광화문 네거리의 저녁 풍경에 매료되어 있다.
- ②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 ③ 맨몸을 드러내고 있는 가로수들을 안쓰러워하고 있다.
- ④ 병균과 같은 어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⑤ 겨울을 겨울답게 두지 않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8. 다음 중 이 시에서 바라본 현실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것은?8)

- ① 그래 살아보아야지 / 너도 나도 공이 되어 / 떨어져도 튀는 공이
- ② 뿌리가 뽑혀 하늘로 뻗었더라. / 낮말은 쥐가 듣고 밤말은 새가 들으니 / 입이 열이라서 할 말이 많구나
- ③ 나는 새장을 하나 샀다. /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 날뛰는 내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이었던 것
- ④ 그것은 가장 견고한 감옥이다 / 갇혀 있는 수인은 바로 돌 자신이다. / 그러므로 언제나 탈옥의 꿈으로 / 불타고 있는 돌
- ⑤ 새벽에 깨어나 /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9. ㉠"이상한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9)

- ① 겨울나무가 실제로 광합성을 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다.
- ② 꼬마전구의 불빛으로 인해 나무가 생명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위적인 현상을 비판적으로 표현한다.
- ④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현상을 설명한다.
- ⑤ 겨울철 나무의 생존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10. 이 시를 영상물로 제작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

- ① 겨울 저녁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
- ② 수만 개의 전등이 켜진 가로수들을 화면 가득 담아내야겠어.
- ③ '광화문(光化門)'의 글자를 오버랩으로 보여 주는 것도 좋을 듯해.
- ④ 내륙 한가운데에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는 해군 장군의 모습을 촬영해야 해.
- ⑤ 화려한 배경 영상과 달리 쓸쓸함이 느껴지는 배경 음악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군.

11. 다음 중 이 시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다른 것은?11)

- ①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 ②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 ③ 문단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 ④ 엽록소를 버린
- 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둘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 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어둠도 이전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단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 나무들

12. 위 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12)

- ①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② 시의 화자는 겨울 광화문 네거리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⑤ 자연에서 인간의 문제로 확대하여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



1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3)

- ① ㉠: 시간적·공간적 배경이 드러난다.
- ② ㉡: 인공조명을 설치한 주체가 권력자임을 알 수 있다.
- ③ ㉢: 나무의 생체 리듬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 ④ ㉣: 인공조명으로 인해 생물이 피해를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⑤ ㉤: 꼬마 전구를 휘감은 나무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4. 다음 중 현실의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가 위 시와 가장 유사한 것은?14)

- ① 십년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 지어 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淸風) 한 간 맛겨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② 대초 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뜻드르며
벼 뵈 그르헤 게는 어이 내리난고
술 닉자 체 장사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 ③ 새벽에 깨어나 /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 곽재구, '새벽 편지'
- ④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노을빛 함께 단돌이서 /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歸天)'
- ⑤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일 년 농사는 이랑곳하지 않고
늙은 흙아비 홀로 갈고 땀는데,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 이제현, '사리화(沙里花)'

15.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은?15)

- ①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② 아아 누구던가. /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 ③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 ④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혼드는
/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 ⑤ 내 마음은 호수요 / 그대 노 저어 오오. /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같이 /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16. 다음 관점에서 이 시를 해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6)

<보기>
생태비평은 자연과 문화의 관계를 탐구하고,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생태계 전체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비평 방법이다.

- ① 겨울나무의 고독과 외로움을 통해 현대인의 소외 문제를 다루고 있다.
- ②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갈등을 비판하고 있다.
- ③ 광화문이라는 역사적 공간의 문화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다.
- ④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의 질서를 훼손하는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 ⑤ 도시화로 인한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 현상을 경고하고 있다.



OX퀴즈 정답과 해설

- 1) > 정답 (O) 해설: 시의 첫 연에서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라고 직접적으로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2) > 정답 (X) 해설: 화자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위적인 장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꽃 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는 표현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 대한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 3) > 정답 (X) 해설: 시에서는 오히려 어둠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라는 표현을 통해 어둠을 부정적으로 보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 4) > 정답 (O) 해설: 시인은 한자 “光化門”을 직접 표기함으로써 ‘빛으로 가득 찬 문’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현대 도시의 과도한 불빛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5) > 정답 (O) 해설: 이는 겨울철에 잎이 모두 떨어진 나무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후 이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인공적인 불빛으로 훼손되는 상황과 대비됩니다.
- 6) > 정답 (X) 해설: “이상한 광합성”은 나무에 달린 꼬마전구를 빚대어 표현한 것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위적인 상황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7) > 정답 (X) 해설: 이 시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 8) > 정답 (O) 해설: 이 표현은 인위적으로 밤을 낮처럼 만드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으로, ‘권력’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 행위의 강제성과 폭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9) > 정답 (X) 해설: 오히려 겨울나무는 도시 문명에 의해 본연의 모습을 잃고 교란당하는 자연을 상징합니다.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 10) > 정답 (O) 해설: 이 구절은 시의 첫 줄로, 해가 지면 어두워져야 하는 자연의 순리가 인공적인 불빛들로 인해 깨져버린 현대 도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 11) > 정답 (O) 해설: ‘광화문’은 공간적 배경을, ‘겨울’은 시간적 배경을, ‘불꽃’과 ‘나무’는 주요 소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12) > 정답 (O) 해설: 이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으로 인해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13) > 정답 (X) 해설: 이 시는 문명 비판적 성격이 강하며,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14) > 정답 (O) 해설: 건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을 사용하여, 밤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도시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15) > 정답 (X) 해설: 이 시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으로 인해 자연의 순리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실제로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교란시키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능형 문제 정답과 해설

- 1) > 정답 ④ 겨울이 되어 가로수가 맨몸이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가로수가 맨 몸이 된 현실은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 아니다.

- 2) > 정답 ③ 해설: ① 나무에 감긴 전구들이 켜져있는 장면을 담은 것이 적절하다. ② 이 시에서 세종문화회관은 문 닫은 시간이므로 많은 사람이 세종문화회관에 드나드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시에서는 야간 조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⑤ 이 시에는 야간 조명으로 인해 해군 장군 동상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강인함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 > 정답 ⑤ 해설: <보기>의 ‘깜깜하고’는 산성눈이 내리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이 시의 ‘어둠’은 자연과 인간에게 필요한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 4) > 정답 ④ 해설: ㉠은 인공조명으로 생체 리듬이 깨져 밤을 낮으로 인식하고 광합성을 하는 겨울나무들의 모습을 나타냈다.
- 5) > 정답 ③ 해설: ③은 도치법의 예시가 아닌 일반적인 어순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 6) > 정답 ① 해설: 화자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7) > 정답 ⑤ 해설: 이 시에서 화자는 ‘어둠’과 ‘겨울’을 회피할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겨울’은 ‘겨울’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실은 겨울의 모습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이런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 8) > 정답 ② 해설: 이 시를 비정상적인 현실의 모습을 비판하는 시라고 이해할 때, 이와 같은 현실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②이다. ②에서 화자는 현실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뿌리와 하늘이 뒤바뀐 모습, 속담의 내용을 뒤바꾸어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다.
① 화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는 작품이다. ③ 새로 산 구두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작품이다. ④ 자유에 대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⑤ 별을 보면서 사랑의 감정을 떠올리고 있는 작품이다.
- 9) > 정답 ③ 해설: “이상한 광합성”은 겨울밤에 꼬마전구로 인해 나무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인 것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10) > 정답 ④ 해설: 작품 속 해군 장군은 정상적인 위치에 서 있지 못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대륙 한가운데 해군 장군이 서 있다는 현실을 화자는 비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군 장군의 강인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해군 장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② 수만 개의 전구로 불이 휘황찬란하게 켜진 가로수들을 화면에 담아 순리를 거스르는 도시 풍경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③ ‘광화문(光化門)’은 ‘빛을 발하는 문’이라는 한자어 자체의 의미를 보여 주는 것이므로 오버랩을 구사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화려한 밤 풍경을 바라보며 염려와 불만을 느끼는 시적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기에 쓸쓸함이 느껴지는 배경 음악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 11) >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 ⑤는 모두 비정상적인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지만 ④는 겨울에 나무들이 겪는 정상적인 상황이다.
- 12) > 정답 ④ 이 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화문 네거리의 모습을 통해 도시의 야간 불빛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당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해설: ① 화자는 도시의 불빛이 만들어 낸 휘황찬란한 풍경 앞에서 자연의 가치와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② 이 시의 화자는 광화문 네거리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③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불빛에 교란당하고 있



는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무들이 잠들지 못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는 모습으로 의미를 확대하고 있다.

13) > 정답 ② 해설: ①에서 '권력'은 꼬마 전구를 의미하는 것이지, 인공조명을 설치한 주체가 권력자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 '겨울 저물녘'을 통해 시간적 배경을 '광화문 사거리'를 통해 공간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조명이 너무 밝아서 밤을 낮으로 인식해 광합성을 하는 나무의 모습은 생체 리듬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인공조명으로 인해 생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⑤ 꼬마 전구를 휘감고 있는 나무의 모습을 '불꽃 나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14) > 정답 ⑤ '사리화'에서 화자는 농민이 애써 지은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의 모습을 통해 권력자들이 백성들에게 수탈과 횡포를 일삼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현실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위 시와 유사하다. 해설: ① 자연에 귀의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과 그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③ 화자는 새벽별을 바라보며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다. ④ 화자는 삶과 죽음에 대해 달관한 자세와 낙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5) > 정답 ③ ㉠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이 눈을 뜨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생명이 없는 사물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활유법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서도 꽃이 피고 지듯이 '계절'을 피어선 진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유법이 사용되었다. 해설: 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에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② '아아'에는 영탄법이, 시구 전체에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④ '소리 없는 아우성'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⑤ '내 마음은 호수요'에는 '내 마음'을 '호수'에 비유한 은유법이, '나는 그대의 ~ 부서지리다.'에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는 나의 모습을 '옥'에 비유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16) > 정답 ④ 해설: 생태비평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의 질서를 훼손하는 현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꼬마전구로 장식된 나무와 밤을 낮처럼 만드는 현상은 인간중심적 사고로 인해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